

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HAPPY FAMILY

가정이 교회가 된다

WEEK

006



Jacob's
Ladder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바울 사도

행 14:8-28

찬양 시간

-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2 내가 매일 기쁘게
- 3 공감하시네

* 큐알 코드를 인식하여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2



3



말씀 시간

-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 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 11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 12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 13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 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여 내치니라
- 20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 21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 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 24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 25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 26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 27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 28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한 상황을 피해 루스드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앓은뱅이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며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못 하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였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일어나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에서도 바울은 곧바로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중에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의 전도여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베까지 온 이후 다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도한 형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게 위해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고 앗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바울과 바나바는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14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 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 시간

Q 현재 나의 삶이 마치 바울처럼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 할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Q 나는 어떤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거나 식습니까? 복음 전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이웃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